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마8:7)

⊗ 4대 실천강령 ⊗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사랑은 이웃에게, 복음은 만민에게”

'99 비전2020 운동 10월 10일 발대식

비전2020 운동의 계절이 왔다. 비전2020 운동이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함으로써 2020년까지 전국민 5천만 명을 기준으로 75%인 37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온 성도가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운동을 말한다.

또한 군선교를 통해 장병들로 하여금 국토 방위의 책임을 완수케 하고 제대 후에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모범 시민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족복음화를 앞당기자는 비전을 갖고 있다.

우리 교회는 1991년 교회 창립에 앞서 7주간의 특별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고, 50일째 되는 11월 24일에 교회창립예배를 드렸다. 그 후에도 해마다 교회설립일 50일 전이 되면 비전 운동을 선포하고 기도와 전도 운동을 전개해 왔다.

비전2000 운동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1998년부터 비전2020 운동으로 개칭되면서 전도 운동의 범위를 군·선교와 교도소 선교, 학원 선교, 장애인 선교 등에까지 확대했다.

교회 설립일을 7주 앞두고 해마다 50일 간 열리는 우리 교회의 이 행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일을 집중적으로

행하며 전도의 결실을 위한 기도운동을 겸하여 벌이고 있다.

올해도 이와 같은 취지 하에서 10월 10일 (주일) 찬양예배 시 발대식을 갖고 50일 간의 기도와 전도 운동을 전개한다.

'99 비전2020 운동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기간

10월 10일(주일) - 11월 28일(주일), 50일간

▶표어 사랑은 이웃에게, 복음은 만민에게

▶주제 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

▶주제성구 및 찬송

· 주제 성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 주제 찬송: “은 세상 위하여나 복음전하라” (찬송가 268장)

▶행동강령

- ① 기도하자
- ② 전도하자
- ③ 열매를 맺자

▶기도제목

- 1. 2020년까지 전국민의 75%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 2.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산실이 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소서

- 3. 세례 지원부대인 3사단 장병들이 신앙 전례화되고 부대가 안전하게 하소서
- 4. 서울성경대학, 목회자신학세미나, 김치신학세미나를 통해 교회 갱신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 5. 농어촌 100교회 운동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소서
- 6. 서울교회 각 기관마다 배가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 7. 서울교회 성도마다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목표

비전2020운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과제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지향하는 한국 교회의 부흥과 복음화된 통일 조국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비전2020 운동은 2020년까지 민족의 75%인 3700만 성도의 나라를 건설하여 건강한 국가를 이룩하는 애국 애족, 신앙 전례화, 21세기 기독교 운동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는 매년 교회 설립 기념일 전 50일 동안 국가와 민족, 교회를 위해 연속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전도하여 21세기 새 예배당 시대를 대비한다.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열린 바자

10월 6일(수) - 8일(금)

교회건축을 위한 바자가 10월 6일(수) - 8일(금) 3일간 우리 교회당에서 열린다.

이번 바자는 소장품을 비롯한 동산, 부동산 등 성도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며, 농어촌 자매교회의 특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자매교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교회를 찾아

올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취급품목은 기증품(상품화 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위탁상품 및 농어촌 자매교회의 특산물 등이며 바자 기간 중 여전도회 연합회에서는 옥담층에서 식당도 운영할 예정이다. 바자에 출품된 모든 기증품(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현금 포함)은 건축현금으로 바치게 되며 이 기간 중에 새롭게 건축현금을 작성할 수 있다.

바자를 위한 기증품 접수는 지난 주일부터 사무국에서 받고 있다. 기증된 물품은 각 교구별로 교구점포에서 판매하며 귀금속, 예술품 등 특수상품은 특수상품점포에서 판매하나 판매금액은 기증한 교구의 판매 금액에 합산하기로 했다.

교회는 새 예배당을 짓기 위한 바자에 온 성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 앞에 붓는 심정으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사야 강해

에브라임의 추락

이사야 28장 1-8절

하나님께서서는 에브라임 족속에게 북 이스라엘의 제일 비옥한 땅을 주셨습니다. 에브라임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방탕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그곳은 토양이 비옥하고 소산이 풍성함으로 '결실이 많다'는 의미의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에브라임은 북 이스라엘의 10지파 가운데 지도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별명처럼 불렸습니다. 그런 에브라임이 갑자기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오용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정욕을 태우는 양식과 연료로 삼았습니다.

(1) 에브라임은 교만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제 것인 양 우쭐거리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를 반드시 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겸손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2) 에브라임은 관능에 탐닉했다

술 취함이 낳은 것은 방탕의 죄였습니다. 에브라임은 '술에 빠진 자'와 '술로 쇠잔해 가는 꽃과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술은 자제력을 상실하게 하고 자기 절제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성을 잃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어리석고 폭력적으로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술은 신체를 망가지게 하고 감정적 흥분을 일으켜 도덕적으로 타락한 행동을 하게 하여 방종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욕심에 취하고 거짓에 취하고 죄악에 취한 사람은 마치 술 취한 자와 같아서 결국 회의 중이 되어 자기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벧후 2:19). 에브라임은 술로 인하여 망했습니다.

(3) 심판의 결과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3절) 이것은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교만한 에브라임의 면류관은 발에 밟힐 것이며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다른 사람들이 황급히 따먹을 것입니다. 자라기도 전에, 익기도 전에 따

먹는다는 말입니다.

2. 하나님은 남은 백성의 영광이 된다

성도는 세상을 이깁니다(요일 5:4-6). 에브라임에는 술 취한 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골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해 가는 꽃같이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려니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해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고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종운 목사



화관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신 날, 그 날에 하나님은 그들의 영광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시며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힘과 능력의 주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다움이시며 또한 아름다운 화관이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판결하시는 분'은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판단하십니다. 거기에는 불의와 부정이 없는데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만이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라"(6절).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는 군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은 곧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영광과 아름다움과 의로움과 힘을 삼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도 참을 수 있고 담력과 용기를 가지고 의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뻐할 수 있고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남은 자,

곧 구원 받은 백성은 에브라임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3. 유다 사람 중에도 망할 자가 있다

술 취한 사람은 에브라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있습니다. 술 취한 이들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 즉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도 독주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술 취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이상을 잘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를 조롱하고 제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법을 버리며 공의를 굽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술 취한 에브라임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술 취한 자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에브라임인가 아니면 유대인가가 아니라 술 취하여 교만한 자인가 아니면 남은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술에 취하지 말고 새 술, 곧 성령에 취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새 술, 곧 성령에 취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군에 입대하는 후배들에게

오윤결(대학부)

논산 훈련소에 입소하면서 저는 딱 두 가지 를 반입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부 형제·자매들의 사진과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은 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단체 생활에 적응한다는 것만으로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나 두번째로 맞이한 주일날 전 상의 주머니에 꼭 들어오는 파란색의 신약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그후로 언제나 전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말씀을 읽었습니다. 개인정비를 끝내고, 훈련 중 쉬는 시간에, 불침번 서면서, 사격장 총소리와 함께, 화장실에서... 볼품없는 그 원색의 책 때문에 '환자'라는 별명을 듣게됐고 주특기 훈련을 끝낼 때쯤엔 마지막장을 넘길 수있었습니다. 이 46주 동안의 기간에 25개월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있는 기초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등병을 달고 자대에 배치되자 정말 숨막히고 정신없었습니다. 훈련소 생활이 그렇기도 했습니다. 이젠 '순교자의 삶'이 요구됐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되 그리 능동적이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인내는 해야 되지만 신앙생활에 타협을 해서도 안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주님이 원하

시는 일이라면 죽기를 각오하고 매달리고 그러면 그것이 감당할 만한 시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대 배치 후 사흘 만에 '번개'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열심히 일한 결과 나름대로 특례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종교행사'를 다녀오고 나서는 그 꿈같은 시간들이 옛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대 바깥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한 간부는 교회일을 모두 부하들에게 억지로 시켰고 한 달에 한 번 교회가는 고참 군중은 티만 내면서도 세상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고참들로부터 횡포를 때져리게 체험해야 했습니다. 특히 제 바로 위 고참의 괴롭힘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제대하는 날 저는 그를 용서했습니다.

혹 입대하는 후배들이 부대에 가면 신앙생활하는 고참을 최소한 한 사람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를 의지하고 함께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가 신앙 생활의 기준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수 주일을 위해선 단호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혹 부대의 전통이 성수 주일을 막는다면 그 전통에 단호히 맞서

야 합니다. 순교자들의 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저는 곧 고참이 됐고 이른바 환상적인 '빠진' 군대에서 비교적 좋은 보직과 환경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교신자 사단장 아래서 열악했던 부대 교회를 위해 일반 사병의 신분으로 열심히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군생활 동안 주일날은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경일이나 추석에 근무를 섰습니다. 처음엔 고참들의 횡포로 주일날 연달아 2번이나 근무를 서도록 되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도 주님은 다른 고참의 필요 때문에 근무일자 바뀔 수밖에 없도록 하셨고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참이 되고 각종 제약이 느슨해지면 교회가는 것조차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또 끊임없이 나태함과 싸워야 할 때입니다. 주일을 일주일 중 가장 바쁜 날로 만들어야 합니다.

군대를 졸업할 때가 가까와 온다는 사실은 한없이 즐겁겠지만 혼자 해야 하는 사회는 분명 군대보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군대는 주님께서 특별한 허락하신 영광의 장소요 단련의 장소로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먼 나라를 다녀오고 나니

서희숙(집사, 제 12교구)

지난 1년 동안 외국 생활을 하면서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순간마다 은혜요 감사할 일 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한국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확신이 없었고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우리의 잘못된 의욕만을 앞세운 쓸데없는 기간이 되면 어쩌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도착 첫 날부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 곁에서 그분이 직접 인도하고 계심을 깨달으며 차츰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적시에 만나게 하였고 여러모로 이 기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구체적으로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의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에 보내신 또 하나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다니던 교회는 5백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경공부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선교에 대한 놀라운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교회에 등록만 하고 봉사는 잠시 접어두겠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올바른 성도라면 어느 곳에서든 은사를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생각에 7주간의 새가족부 과정을 거쳐 바로 찬양대원으로 봉사했습니다.

우리는 1년 간의 미국 생활을 통해 교회의 사역은 반드시 큰 규모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죽은 생명들을 일깨우는 능력자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재충전된 저희들은 이제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면서 이전보다 더 큰 감사와 감격으로, 빛진 자의 심정으로 더 힘써 순종할 각오이고 아울러 저희들과 같은 제2, 제3의 영적 연수생이 계속 배출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날에

성도의 가장 큰 소망 중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실현이다. 어떤 이에게는 공포의 날이 되겠지만 성도에겐 감사와 환희의 날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이르기 전에 결코 서두르시지 않으실 것이다. 악한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심판은 정한 날에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무도 불평하지 못할 것이다.

심판은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그들에게 상응한 보응일 뿐 어느 한 편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의 결과엔 전적인 승복이 있을 뿐이다. 무능하신 심판을 포기하셨다니 심판은 결코 없을 것이라느니 함부로 망언을 남발하거나 오만한 행동을 하는 이들에게, 그날은 무서운 날이 될 것이다.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영원히 살 줄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좌담회 ① - 교육위원회

교회학교 교육의 과제

■...우리 교회학교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교회학교 여름행사가 마무리된 지난 8월 29일 교회당 4층 교사실에서 '서울교회 교육의 과제와 내일'을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새 예배당 시대를 앞둔 오늘 우리 교회학교의 교육 현실을 짚어보고 앞으로 가야할 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다. ...■

- ▶ 일시: 1999년 8월 29일
- ▶ 장소: 서울교회 4층 교사실
- ▶ 참석자: 이성득 목사, 최종시 장로, 김광신 장로, 우지원 집사, 오광환 집사, 이완형 집사, 김세재 집사

1. 교회학교의 문제점

- 우리 교회에는 13개 교회학교가 있어 갖 태어난 유아에서부터 70세 이상의 노인까지 연령별로 교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교회학교 내에는 지체장애자를 위한 사랑부나 신혼부부 및 예비 부부를 위한 새가족부 등 특수부서도 운영되고 있다. 한편 작년부터 어린이 찬양예배(주일 저녁예배), 어린이 수요일예배를 새로이 시작해 교회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 학생 수에 비해 전체적으로 교회 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교회학교에서 계획한 자체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쉽다.

- 현실에 맞는 교재와 프로그램이 좀더 적극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교회학교에서 이용되는 교재는 멀티미디어, 사이버 환경에 익숙한 학생들을 소화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 이러한 현실은 학부모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일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 평일에 교사들이 모이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교사 교육을 위한 모임이나 기도회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 교사 조직이 상대적으로 비관하여 학생들에게 쏟아야 할 열정과 관심이 조직 유지에 낭비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또 어떤 부서는 세분화되어 오히려 조직의 효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 당회나 학부모 등의 관심도 예전에 비해 낮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이는 교사들의 사기저하 및 의욕상실에서 기인된 것일 수 있다.

- 그러나 이런 우리 교회학교 교육의 문제점은 교사와 학부모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관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 현재 우리 교

회학교 교육의 상대적 침체를 열악한 환경이나 시대적 조류로 돌릴 수는 없다. 천국시민의 양성을 지향하는 우리 교회학교의 목적 달성을 위해선 더 이상 교회학교를 방치하지 않고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이 요구된다.

2. 내일을 위한 제언

- 우선 교회학교 교육을 통괄하여 전담 지도할 수 있는 교역자의 영입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새 예배당 건축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담 교역자의 영입을 건의하는 것은 교회학교의 근본적 개혁의 시급성 때문이다. 프로그램의 수립과 추진, 그리고 지도 목표의 통합 진행 및 점검을 주도할 전담 교역자가 있다면 부서간 협력도 좀더 원활하게 될 것이다.

- 교사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분위기와 정기적인 교육을 부서별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형식적인 일괄 모임은 지양하고 모범이 되는 교사의 연구발표 기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필요하다면 우수 교사를 선발하여 작은 시상이라도 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파견 교육을 시켜 대안을 제시하게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갖자. 물론 우리 교회에 맞는 좋은 모델이 중요할 것이다.

- 교사의 인사에 풀제를 도입하는 등 교사 임명에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모든 교사 희망자들은 소정의 신청서에 1-2 지망을 분명하게 기입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함께 첨부토록 하자. 먼저 필요한 교사의 수는 교회학교 부장들이 소관 부서의 최소화된 조직과 필요 인원을 미리 보고 하게 하여 결정하고 교사의 선발은 전담 교역자와 인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토록 하자. 신청서 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나 교회 학교를 주일날 휴식공간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교사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이렇게 선발된 정에 교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헌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 1년 예산은 효과성과 실질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수립하자. 그리고 일단 사업 계획과 함께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 미래 지향적인 프로그램 수립을 위해 데스크포스를 만들어 교육전담 교역자를 중심으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세우도록 하자. 소그룹 교육, 제자 훈련, 찬양 예배, 외국어 예배, 활동 메뉴의 다양화 등 방법론에 있어서도 문호를 개방하자.

■ 동정 ■

- * 이종운 목사는 28일(화) 숭실대학교 신앙수양회를 인도하며 30일(목)에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운동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 * 김유진 성도(8교구 황성욱 집사 딸)는 17일(금) 예술의 전당에서 무용공연을 가졌다.
- * 김해련 집사(11교구)는 10월 1일(금) 송파구 석촌동에 '닥터존'을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린다. ☎ 413-0015
- * 이반주 식사는 오정수 장로·이영희 집사가 가정에서 제공했다.
- * 사랑부는 26일(월) 새예배당 건축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기독교방송(HLKK 1188KHz) 생명을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비전2020 운동을 위해
2.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바자를 위해
3. 서울성경대학교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일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5시30분

